

# 이명박 정부 불교계 홀대 '징후'

청와대를 중심으로 불교계를 무시 또는 홀대하는 종교편향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개신교 장로'가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우려됐던 문제들이 드디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 봉축연등 달기에서 보여준 '결례'는 불교계에 대한 '홀대'가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 봉은사 관계자는 "보통 부처님오신날이면 관행적으로 주요 사찰에 '연등 값'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사리에 맞지 않아 돌려보낸 일이 있다"고 말했다. 봉은사에서 청와대 측에 제기한 문제는 ▲연등은 개인 정성인데 '행정조치', '지침'으로 전국 각 사찰에 연등을 달게 한 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사찰을 찾지 않고 지방 공무원에게 연등 값을 보내게 한 점 ▲대통령 인장이 찍힌 봉투를

## 사찰 봉축연등 달기 '행정조치' 처리 논란 빚어 "청와대 중심으로 종교편향 조짐" 우려 목소리

쓰지 않은 점 등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청와대불자회 회장 김병국 외교안보수석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 13일 직접 봉은사를 방문, 주지 명진 스님에게 "혼란만 한 일이었다"고 사과해 일단락 됐다.

청와대의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종교 조사도 물의를 빚고 있다. 한 시사주간지는 최근 "3월 20일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국가인권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며 조사항목에 '종교'를 포함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종교 항목은 이력서에서도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가인

권위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이다.

학교 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학교법인 대광의 예배강요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던 강익석(22)씨가 5월 8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것에도 일각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1심 판결과 현 정부 하에 벌어진 2심 판결이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강씨는 고등학교 입학 시 대광학원 측의 선서문을 따랐으며 2학년 때까지는 종교수업에 입회하고 수요예배 등에도 참여했으므로 종교행위 자체가 강제로 이뤄

진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요지로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소는 이에 대해 "강의 석씨 사건 담당판사가 개신교인이고 대광고등학교를 설립한 모교회의 장로여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청소년의 인권 및 종교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타 사회기관들과의 연대로 풀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역사찰이나 불교계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일하기 힘들어졌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스님은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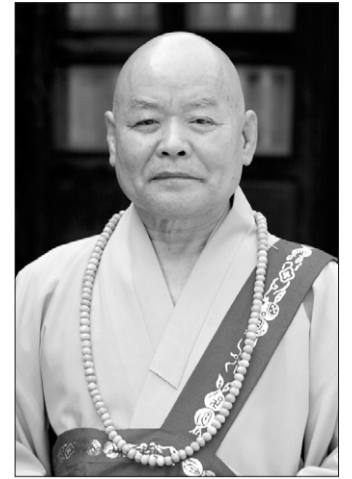
기관장들 중 기독교 신자가 많은데, 이들이 불교 행사 때는 어지간하면 오지 않으려 한다"며 "예전에는 개신교 기관장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행사 시간을 자신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일도 잦다. 청와대의 종교편향적 태도에 지방 기관장들까지 부화뇌동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공동대표(서강대 교수)는 "고위공직자들이 특정 종교에 편중돼 있을 때는 그 성향이 아랫사람들에게 바로 연결된다"면서 "종교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지라도 고위로 올라갈수록 종교적 색깔은 빠지고 공인답게 처신해야 한다. 대통령도 개인이라는 말이 있지만, 대통령이 움직이면 공적인 사안이 되므로 종교관련 행사, 언행은 피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 무자년 하안거 결제 입제

### 법전·혜초 종정 하안거 결제법어 발표

5월 19일(음력 4월 15일) 전국 100여개 선원, 2200여 수좌들이 일제히 불기 2552년 하안거 수행진전에 돌입한 가운데,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15일 하안거 결제법어를 각각 발표했다.

법전 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백장(百丈) 선사와 제자들의 문답을 예시하고 "백장을 비롯한 모든 중사들은 가시답불 같은 선문답으로써 사람을 시험했다"며 "남자들은 활구(活句)를 참구할 뿐이지 절대로 사구(死句)로 헤아리지 않는다"고 남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목도 입도 쓰지 않고 말할

수 있느냐?'는 백장 선사의 물음을 타파하기 위해, 부디 화두를 잘 지니고 이번 하안거에도 열심히 참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수행자는 틀에 박힌 관념의 허상을 벗어나야 진정으로 도(道)에 이를 수 있다"며 "이번 안거에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가다듬어 일추석전(一簍石穿) 하나의 송곳이 바위를 뚫듯이 분심으로 부처님의 지견(佛智之見)을 깨시옵(開示)옵소서: 열어주고 보여주시옵소서"를 참구할 뿐이지 절대로 사구(死句)로 헤아리지 않는다"고 남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목도 입도 쓰지 않고 말할

김성우 기자

## 직능직 종회의원 도공·도문 스님

###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축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장직, 지명 스님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교육과 법제분야의 직능직 종회의원에 전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과 조계사 재무국장 도문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6일 잇달라 관련회의를 열고 두 스님의 후보

자격을 심사, 교육과 법제 분야의 신임 직능직 종회의원으로 선출했다. 도공 스님은 74년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뒤 법주사 주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청주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했다. 도문 스님은 97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고 13대 중앙종회의원과 조계사 부주지, 재무국장 소임을 맡았다. 김성우 기자

### 북경 올림픽 선전기원

### 체육인 불자 수련대회

오는 8월 열릴 '베이징 올림픽'을 석 달 앞두고 체육인불자들을 위한 기도와 화합의 장이 열린다.

조계종포교원(원장 혜총)과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는 국가대표들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5월 23-24일 양산 톱도시에서 '베이징 올림픽 선전기원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수련회에는 올림픽 참가 국가대표선수 20여명 및 역대 불자 금메달리스트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련대회는 수계법회, 견기명상, 법문, 문화한미당 등 불자선수들이 편안할 마음으로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김강진 기자



5월 12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사진=박재원 기자>

## 전국서 봉축법요식 일제 봉행

### 조계사 1만 사부대중 참석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이 주관하는 조계사 법요식은 5월 12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요식에는 종단의 출·재가 대표자와 유인준

문화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통합민주당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은 MBC, KBS1TV, BBS, BTN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김성우 기자

## 임란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재 봉행

### 태고종, 23일 통영 한산도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 등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산대재가 통영 한산도에서 열린다.

태고종(총무원장 윤산)은 오는 5월 23일 오후 1시~5시 경남 통영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및 한산도 제승당에서 '임진왜란 전몰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통영시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영산대재는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5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법회에서는 한산도 앞바다에서 선

상방생법회와 특산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이번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재는 지난해 독도 영산대재에 이어 두 번째다. 김성우 기자

##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 지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회문제, 강의, 법문, 기업 성장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담당/감독/김동현(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영상학강사)

문의: 02-2004-8279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 대한불교 총화종

(재)한국불교 총화종 유지재단

종정 이동광  
부종정 이정송  
총무원장 전남정

총회 의장 최만재  
총회부의장 기희성, 김운산  
교육원장 이남은  
포교원장 정일광  
호계원장 김혜각  
감찰원장 김혜암  
문화원장 백만우  
선원장 이만오  
선거관리위원장 조고담

총무부장 박현오  
재무부장 강설오  
사회부장 윤대암  
호법부장 이지우  
교무부장 문혜각

감찰부장 이범오  
교육부장 최일광  
포교부장 박지혁  
문화관리부장 문보현  
호계기획부장 황해월  
문화부장 박보광

서울(북)제1교구총무원장 이혜인  
서울(북)제2교구총무원장 박현오  
서울(남)제3교구총무원장 김병능  
경기(북부)총무원장 유법경  
경기(동, 남)총무원장 최일광  
경기(성남)총무원장 정범연

경기(서부)총무원장 김혜암  
대전총무원장 윤법전  
충청총무원장 김병현  
경북총무원장 정일광  
울산교구총무원장 백만우  
경남서부교구총무원장 김만월

경남중부교구총무원장 박심공  
부산총무원장 최만재  
강원제1교구총무원장 정혜산  
강원제2교구총무원장 허승호  
광주, 전남총무원장 김현산  
제주총무원장 김봉도

■총무원: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호 수신사 TEL 031)592-8891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 한국불교 태고종 재단법인 태고원 부모산 연화사 (전통사찰 77호)

주지 보안  
사부대중일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95-29 TEL 043)231-3807 / FAX 043)232-3807